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21세기 한국 교육의 위기와 대안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문제와 개정 방향-

### (1) 취지

우리는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산업사회적 패러다임에서 갇혀 있는 학교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현실은 수 십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교과서 내의 지식 암기만을 강조하고 있어 21세기가 요구하는 사고력, 창의력, 정보활용능력은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학교교육을 미래 지향적인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은 교실과 교과서를 뛰어 넘어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뛰어넘는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뒷받침해야 할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이 무엇이어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그 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독서교육, 도서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2) 토론회 개요

① 일시 및 장소 : 9월 27일 (목) 오후 3시-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② 주최 : 이찬열 의원실

③ 주관 : 학교도서관정상화를 바라는 단체협의회(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도서관친구들,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④ 참가대상 : 교육위 국회의원/보좌관, 독서교육 시민단체 관계자, 도서관계 단체 100명

### (3) 토론회 구성

사회 : 안찬수(책읽는사회운동 사무처장)

[발제] ① 21세기 한국교육의 위기와 왜 학교도서관인가?-백화현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봉원중학교 교사)

②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와 개정방향은? - 이병기(공주대학교 교수)

[자유토론] ① 여을환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상임이사)

② 소병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우신고등학교 사서교사)